

한국 대학생의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핵심자기평가, 일 자유의지, 일 희망의 매개효과

안 진 아

콜로라도주립대학교 심리학과

이 지 연¹⁾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핵심자기평가, 일 자유의지, 일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8-29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최종적으로 210부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명의식은 일 자유의지, 핵심자기평가, 일 희망, 삶의 만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연구 변인들 간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핵심자기평가-삶의 만족과, 일 희망-삶의 만족 간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의미하지 않은 두 개의 경로를 제외한 후 최종모형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명의식은 핵심자기평가, 일 자유의지, 일 희망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었으나, 일 자유의지만이 소명과 삶의 만족 간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진로를 계속 추구하리란 의지력 수준이 높으며, 이러한 의지력이 현재의 삶의 만족감과 긍정적으로 관련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명의식이 대학생의 진로개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임상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소명의식, 핵심자기평가, 일 자유의지, 일 희망, 삶의 만족

1) 교신저자 :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E-mail: becoming@inu.ac.kr)

I. 서 론

2016년 현재 대한민국 청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삼포세대”란 말이 있다. 취업을 위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이들이 겪는 극심한 취업난과 각박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조어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진지한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2015년 OECD 건강통계자료에 의하면(OECD, 2015),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11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 집단과 관련하여, 진로 및 취업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조혜정, 2013). 구체적인 스트레스 원으로 고학년, 낮은 대학생활 만족도, 낮은 자아존중감, 여가활동 부족, 취업준비 불만족, 취업고민을 나눌 상대 부재 등이 언급되었다(최승혜, 이해영, 2013). 현대 사회는 더 이상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통용되지 않으며, 전 생애적 진로발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적응능력 및 진로발달 과정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요인들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심희준, 이상희, 2016). 특히 대학생 시기는 실제 직업 세계에 들어가지 전, 세부 계획을 세우고 진로 관련 다양한 탐색을 하는 시기이다(Super, 1953). 때문에, 대학생 시기동안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고, 여러 진로 관련 경험들을 쌓는 것이 주요한 과업 중 하나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박한 취업 준비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의 진로 준비과정을 의미 있게 여기고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진로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최근 진로상담 관련 저널에는 “소명”이란 단어가 공공연히 등장하고 있다. 소명(calling)이란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거나 이끌렸다는 초월적인 신념(예: 종교적 부르심, 사회적 부르심, 혹은 가업)과 더불어, 자신의 직업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대외적으로는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진로의식을 뜻한다(Dik & Duffy, 2009). 대학생과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소명연구들은, 소명의식이 진로 및 심리적 안녕감 변인들과 긍정적으로 관련됨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Wrzesniewski, McCauley, Rozin, 그리고 Schwartz(1997)에 의하면, 자신의 진로를 소명이라고 여기는 집단이, 경제적 보상 혹은 성취 및 승진을 중시하는 집단보다 더 높은 삶·직업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명의식 수준이 높은 미국 대학생 집단은, 높은 수준의 진로성숙도, 내재적 일 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업만족도, 삶 의미, 삶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ik, Sargent, & Steger, 2008; Duffy, Allan, & Dik, 2011; Duffy & Dik, 2013; Duffy & Sedlacek, 2007; Steger, Pickering, Shin, & Dik, 2010). 소명과 심리적 안녕감 변인들 간 긍정적 관계에 대한 경험적 지지가 증가하면서, 왜 소명의식이 높은 수준의 진로·삶 만족도와 연결되는지를 규명하고자 다양한 매개변인과 조절변인들이 탐색되었다. 그 중에서도, 일의 의미와 삶의 의미가 소명-심리적 안녕감 변인 간 관

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명의식이 높은 집단은 현재 자신의 일과 삶이 의미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직무몰입, 직무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nderson & Thompson, 2009; Duffy, Allan, & Bott, 2012). 하지만 이러한 일 의미 매개모형은 소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되는 동시에, 대학생집단 내 소명-심리적 안녕감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의문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소명이라 생각하는 진로가 본인에게 맞는지 충분한 일 경험을 통해 확인할 기회가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이들의 소명-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는 추후 실제적인 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Duffy et al., 2012). 이러한 제한점은 대학생 집단 내 소명-심리적 안녕감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해주는 새로운 매개변인의 탐색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명의식이 진로준비시기의 삶 만족도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어떤 변인이 소명과 삶 만족도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Lent(2004)는 개인의 삶 만족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인들로 (a) 성격특질과 정서적 경향성, (b) 목표 지향적인 활동, (c) 자기효능감, (d) 환경적 지지 및 이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e) 결과 기대를 제시하였다. 먼저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국내 소명연구들은 진로 관련 자기효능감 변인들을 주로 사용하여 왔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소명연구들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소명의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신윤정, 2013), 진로정체감(양난미, 이은

경, 2012), 진로선택몰입(이지원, 2014) 그리고 진로태도성숙(박주현, 유성경, 2012)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orrey와 Duffy(2012)는 소명의식이 진로관련 변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삶 만족도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핵심 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총체적인 평가 정도를 말하며, 자아존중감(self esteem), 전반적인 자기 효능감(generalized self efficacy), 지각된 통제력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이란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Judge, Locke, Durham, & Kluger, 1998). 다시 말해, 핵심자기평가란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자아존중감),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자기효능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정도(지각된 통제력),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정도(정서적 안정성)를 포괄함으로써, 한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는 상위개념이다. Erez와 Judge(2001)은 이 네 하위요인이 핵심자기평가란 하나의 상위개념으로 수렴됨을 대학생 집단과 보험회사 직장인 집단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독립적으로 네 하위요소를 분리할 때보다, 핵심자기평가란 하나의 상위개념으로 사용될 때, 직업만족과 삶 만족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dge, Erez, Bono, & Thoresen, 2002). Duffy 등(2011)은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명과 핵심 자기평가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으나, 국내 소명연구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과 같이 주로 진로관련 자아상과 소

명 간 관계를 고려하여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 사이에서도, 소명의식이 진로 영역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데도 관련되는지 알아보고자, 핵심 자기평가를 소명-삶 만족 간 매개변인으로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Lent(2004)의 주요변인들 가운데, Duffy, Bott, Allan, 그리고 Torrey(2013)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희망을 유지하는 것이 취업준비단계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명료한 직무·과업을 부여 받은 직장인에 비해, 취업준비 대학생 및 구직자 집단은, 자신의 현재 노력이 결실을 맺으리라는 낙관적 예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보았다.

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구인하는 변인 중 하나로 일 희망(Work hope)이 있다(Juntunen & Wettersten, 2006; Snyder 2000). 일 희망은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기화된 상태를 지칭한다. Snyder(2000)는 ‘희망’이란 뚜렷한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지각된 역량을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소명과 결과기대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본 국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명 의식이 높을수록 목표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진로활동을 계속 추구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으며, 실제로 소명의식은 일 희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Dik, Eldridge, Steger, & Duffy, 2008; Hall & Chandler, 2005). 또한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명은 일 희망을 통해 높은 수준의 학업만족도와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uffy et al., 2011), 미래를 낙관적으로 지각하고 긍정적으로 동

기화될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rmani, Sharma, Anas, & Sanam, 2015).

최근에 결과기대를 구인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일 자유의지(work volition)”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일 자유의지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진로결정을 할 수 있다는 지각된 능력을 말한다(Duffy, Diemer, Perry, Laurenzi, & Torrey, 2012). 일 희망이 미래 진로에 대해 낙관적으로 동기화된 수준을 나타낸다면(박주현, 유성경, 2012), 일 자유의지는 지각된 장애물·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진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반영한다(Duffy, Diemer, & Jadidian, 2012). Blustein(2006)은 아무런 제약 없이 최상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따라서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고, 이 제약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개인의 의지력이 현대사회의 직업선택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일 자유의지가 실직한 성인집단의 삶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Duffy, Bott Allan, & Torrey, 2013), 미국 대학생들의 학업 만족도와도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Jadidian & Duffy, 2012).

소명과 일 자유의지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 자유의지가 소명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perceiving a calling)에서 소명대로 직접 ‘살도록’(living a calling) 촉진시키는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Duffy & Autin, 2013). 확고한 소명의식이 있을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소명이라 생각되는 진로활동을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박주현, 유성경, 2012; Duffy et al., 2011). 소명 선행연구들은 소명의식과 일 자유의지 간 정적관계를 시사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 관계가 연구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일 자유의지가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 변인들 간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외에서도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에 대한 낙관성을 의미하는 일 희망과, 부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일 자유의지를 “결과기대” 변인으로 함께 설정하였다. 일 자유의지를 매개변인으로 새롭게 제안함으로써 삶 의미 이외에 어떤 변인이 소명의식과 삶 만족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상으로 소명의식, 핵심자기평가, 일 자유의지, 일 희망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에서 왜 소명의식이 삶 만족과 연결되는지 탐색하고자, 핵심자기평가, 일 자유의지, 일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매개변인 간 관계와 관련하여, 핵심자기평가가 일 자유의지, 진로주도성과는 정적으로(Duffy et al., 2013; Hirschi & Hermann, 2012), 스트레스 및 우울변인과는 부적으로(Torrey & Duffy, 2012) 관련된다는 선행연구가 보고되었다. 핵심자기평가와 삶 만족 간 매개변인들을 연구한 Smedema와 Tansey(2015)에 따르면, 희망 변인이 핵심자기평가와 삶 만족을 가장 강력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ung, Wu, 그리고 Yeung(2016)은 홍콩 중년층을 대상으로 일 자유의지와 관련된 변인들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자기신념은 일 자유의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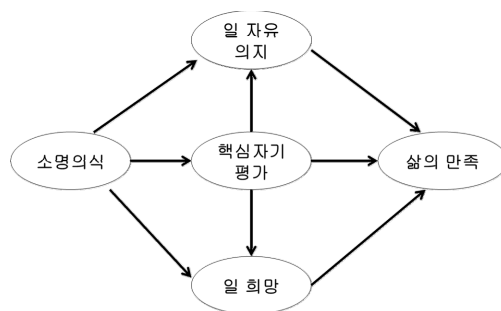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정적으로 관련되었고, 부정적인 현실 제약과 일 자유의지 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지칭하는 핵심자기평가 수준이 일 자유의지, 희망 변인과의 관련될 것으로 보고, 핵심자기평가-일 자유의지와 핵심자기평가-일 희망간 경로를 추가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도의 4년제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230부의 설문지를 중간 회수자가 3주에 걸쳐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수거된 230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2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10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먼저, 성별 분포는 남성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95명(45.2%), 여성은 115명(54.8%)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18-20세가 77명(36.7%), 21-24세가 119명(56.7%), 25-29세가 14명(6.7%)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39명(18.6%), 2학년 58

명(27.6%), 3학년 66명(31.4%), 마지막으로 4학년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47명(22.4%)이었다.

2. 측정도구

소명의식(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K)

소명의식은 Dik 등(2008)이 개발하고 심예린과 유성경(2012)이 번안한 한국판 소명척도(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중 12문항의 소명존재척도를 사용하였다. CVQ는 총 24문항으로, 12개의 소명추구 척도(CVQ-Search)와 12개의 소명존재 척도(CVQ-Presence)로 구성되어 있다. 소명 추구척도는 아직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지 못하고, 소명을 찾고 있는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며, 소명 존재 척도는 자신의 진로를 소명이라고 여기는 수준으로, 본인의 일이 자신의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보탬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소명 추구 및 존재척도는 모두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월적 부름(예, 나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분야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다), 목적/의미(예, 나의 일은 내 삶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도와준다), 친사회적 지향성(예, 나의 일은 공익에 기여한다)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Likert식 4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소명을 잘 알고 있고, 본인의 진로를 소명으로 여기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소명 존재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초월

적 부름 .72, 목적/의미 .84, 친사회적 지향 .76, 그리고 전체 내적합치도는 .85이었다(강영숙, 2015).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초월적 부름 .80, 목적/의미 .82, 친사회적 지향 .75, 그리고 전체 내적합치도는 .93이었다.

핵심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

핵심자기평가는 Judge 등(2003)에 의해 개발되고, 양필석(200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2문항은 총 4개의 하위 개념(자아존중감, 일반화된 자기효능감, 내재적 통제감, 정서적 안정성)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으며, 5점 척도를 사용한다. 각 하위척도별 설문문항 예시로는, 자아존중감(예,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게 만족한다), 일반화된 자기효능감(예, 나는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지각된 통제력(예,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예, 나는 가끔 우울하다)등이 있다(양필석, 200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0(양동민, 박종민, 김형진, 심덕섭, 201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일 희망(Work Hope Scale: WHS)

일 희망을 측정하기 위해 Juntunen과 Wettersten(2006)이 개발하고 박주현과 유성경(2012)이 한국어로 번안한 일 희망 척도(Work Hope Scale; WHS)를 사용하였다. 일 희망은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기화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박주현, 유성경, 2012), 최종문항은 24문항이며 Likert식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하

위척도는 목표, 경로, 주도성 세 가지이며, 예시문항으로는 목표(예, 나는 일터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경로(예, 일에서 성공하는 데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 주도성(예,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설정한 일 관련 목표를 충족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등이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주현과 유성경(2012)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주도성 .88, 경로 .73, 목표 .83 이었고, 전체 내적합치도는 .93이었다. 본 연구의 경우, 주도성 .79, 경로 .78, 목표가 .83, 그리고 전체 내적합치도는 .92였다.

일 자유의지(Work Volition Scale: WVS)

일 자유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Duffy 등 (2012)이 개발한 일 자유의지 척도(Work Volition Scale; WV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1차 번안한 후, 심리학과 교수 한 명과, 영어와 한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심리학 전공 박사과정 학생에게 감수를 받았다. 일 자유의지는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Likert식 7점 척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또한, 전반적인 자유의지, 구조적 제약에 대한 자유의지, 경제적 제약에 대한 자유의지 총 3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인 자유의지는, 총 4문항으로 진로선택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지 수준을 측정한다(예,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해왔다). 구조적 제약에 대한 자유의지는, 사회·외부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추구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외부 상황적

여건들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 일자리를 제한한다고 느낀다). 경제적 제약에 대한 자유의지는, 개인의 경제 형편이 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며,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나는 내가 구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 최종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진로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의지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일 자유의지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자유의지 .82, 구조적 제약 .81, 경제적 제약 .86, 전체 내적합치도는 .90이었으며(Duffy, Diemer et al., 2012),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자유의지 .67, 구조적 제약 .66, 경제적 제약 .67, 전체 내적합치도는 .78이었다.

삶의 만족(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SWLS)

삶의 만족은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SWL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임영진, 2012)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Likert식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1=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영진(201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경찰공무원은 .91, 대학생은 .84, 청소년은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85였다.

3. 자료분석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소명의식과 삶 만족 간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 핵심자기평가, 일 희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우선 구성개념이 측정변인에 의해 얼마나 제대로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소명의식, 일 자유의지, 일 희망은 각 척도의 하위요인을 사용하였고, 핵심자기평가와 삶의 만족은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전체문항을 세 개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한 매개변인으로 선정된 일 자유의지, 핵심자기평가, 일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의 매개효과 해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자료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부트스트랩 자료 표본을 모수 추정에 사용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이 구간 내에서 영가설에서 설정한 값인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유의도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해석한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명의식은 일

표 1. 소명의식, 핵심자기평가, 일 자유의지, 일 희망, 삶의 만족 간의 상관 ($N = 210$)

	소명의식	일 자유의지	핵심자기평가	일 희망	삶의 만족
소명의식	-				
일 자유의지	.36**	-			
핵심자기평가	.33**	.47**	-		
일 희망	.48**	.68**	.66**	-	
삶의 만족	.49**	.43**	.57**	.54**	-
<i>M</i>	2.70	4.88	3.37	4.99	4.19
<i>SD</i>	.52	.81	.61	.82	1.21
첨도	.22	.06	.15	.25	-.16
왜도	-.67	-.74	.11	-.51	-.24

* $p < .05$. ** $p < .01$.

자유의지($r = .36, p < .01$), 핵심자기평가($r = .33, p < .01$), 일 희망($r = .48, p < .01$), 삶의 만족($r = .49, p < .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일 자유의지는 핵심자기평가($r = .47, p < .01$), 일 희망($r = .68, p < .01$), 삶의 만족($r = .43, p < .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일 희망은 삶의 만족($r = .54, p < .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측정변인의 전체 평균값은 소명의식 2.70($SD = .52$), 일 자유의지 4.88($SD = .81$), 핵심자기평가 3.37($SD = .61$), 일 희망 4.99($SD = .82$), 그리고 삶의 만족 4.19($SD = .121$)이었다. 또한 본 연구 변인들이 구조방정식 모형 정규분포 조건(왜도 < 2 , 첨도 < 7)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고자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으며(West, Finch, Curran, 1995), 모형 검증의 적격성이 가정되

었다고 추정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2.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변인 간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또한 $CFI = .942$, $TLI = .923$, $RMSEA = .076(90\% CI: .061-.091)$ 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값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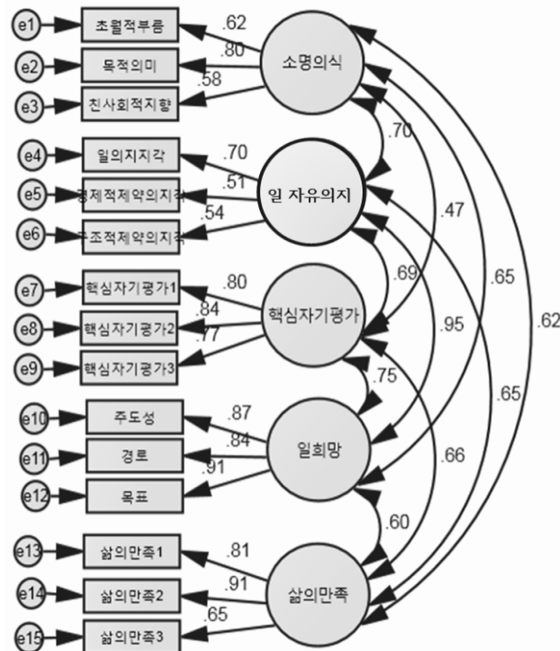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3. 구조모형 검증

모형 비교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 = .898$, $CFI = .920$ 으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고, $RMSEA = .088$ 로 보통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연구모형의 7개 경로 가운데 핵심자기평가 → 삶의 만족에 이르는 경로, 일 희망 → 삶의 만족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유의미하지 않은 두 경로를 제외한 후 모형을 검증한 결과, 표 2와 같이 $TLI = .900$, $CFI = .919$, $RMSEA = .081$ (90% CI: .076-.091)을 보여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고, 모든 경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수정모형이 자료의 특

성을 더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3과,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

최종 모형의 내생잠재 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핵심자기평가가 소명의식에 의해 설명되어 지는 양은 약 21.7%, 일 자유의지가 소명의식과 핵심자기평가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94.9%, 일 희망이 소명의식과 핵심자기평가에 의해 설명되는 양은 약 75.3%, 삶의 만족이 소명의식, 일 자유의지, 핵심자기평가에 의해 설명되는 양은 56.8%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3, 표 3과 같다.

표 2. 연구모형과 최종모형의 적합도 비교

	χ^2	df	p	CFI	TLI	RMSEA (90% CI)
연구모형	214.43	82	.000	.920	.898	.088 (.074~.102)
최종모형	218.36	84	.000	.919	.900	.081 (.076~.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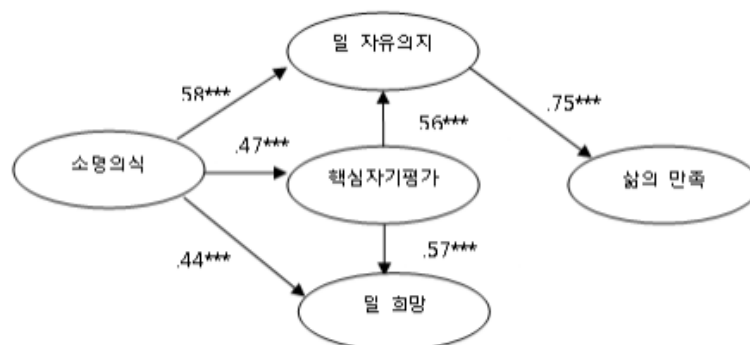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최종 모형의 모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계수
소명 -> 핵심자기평가	.56	.12	4.69***	.47
소명 -> 일 자유의지	.93	.17	5.52***	.58
소명 -> 일 희망	1.62	.30	5.39***	.44
핵심자기평가 -> 일 자유의지	.75	.11	6.40***	.56
핵심자기평가 -> 일 희망	1.74	.22	7.84***	.57
일 자유의지 -> 삶 만족	.55	.06	8.31***	.75

*** $p < .001$.

매개효과

소명의식, 일 자유의지, 핵심자기평가, 일 희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소명의식이 핵심자기평가($\beta = .47$), 일 자유의지($\beta = .58$), 일 희망($\beta = .44$)으로 가는 직접경로와 핵심자기평가가 일 자유의지($\beta = .56$), 일 희망($\beta = .57$)으로 가는 직접경로, 일 자유의지가 삶의 만족($\beta = .75$)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고, 소명의식이 일 자유의지, 일 희망으로 가는 간접경로는 중간 효과크기를,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으로 가는 간접경로는 중간 효과크기를, 핵심자기평가가 삶의 만족으로 가는 간접경로는 큰 효과 크기를 나타내었다.

한편, 핵심자기평가,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홍세희, 2001; Baron & Kenny, 1986), 소명의식이 일 자유의지로 가는 간접경로($p < .01$), 소명의식이 일 희망으로 가는 간접경로($p < .001$),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으로 가는 간접경로($p < .001$), 핵심자기평가가 삶의 만족으로 가는 간접경로($p < .01$)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왔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핵심자기평가, 일 자유의지, 일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각 연구변인들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변인 간 상관 정도가 다중공선성을 염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측정 모형 검증 결과, 각 변인 간 관계가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구조 모형 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경우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으나, 핵심자기평가-삶 만족과 일 희망-삶 만족 간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두 경로를 제외했을 때, 모형의 적합도 수준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그림 3과 같이 최종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최종모형은 기존 선행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선행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명의식은 일 자유의지, 핵심자기평가, 일 희망 변인과 긍정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높은 수준의 소명의식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고, 미래 진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유지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함을 나타낸다(Duffy & Sedlacek, 2007; Steger & Dik, 2009). 이는 높은 수준의 소명의식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Duffy, Douglass, Autin, & Allan, 2014; Steger et al., 2010), 극심한 취업난으로 이상적인 진로를 추구할 심리적 여유가 없는 한국 사회에서도 소명의식은 유용한 함의를 지님을 시사한다. 이는 현실적인 취업 준비 활동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 및 목적을 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로가 무엇인지 제고해보는 시간 또한 대학 생활 동안 중요함을 시사한다. Savickas(2005)는 인간은 자신의 진로 경험들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해가며 본인의 진로를 만들어간다고 하였다. 개인이 지난 경험들에 의미를 부과하며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인생 주제(life theme)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미래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주관적 경험들을 의미 있는 담화(narrative)로 완성해나가는 구성주의 진로상담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진로를 소명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삶의 의미, 일의 목적, 일의 가치, 자신의 진로를 통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자 하는지를 함께

탐색해보으로써 대학생들이 각자의 소명을 구체화하고 미래 진로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소명의식과 삶 만족 간 매개변인 효과에 대한 결과는, 유일하게 일 자유의지만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가 지지되지 않은 결과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 다른 부분이다. 미국 내 취업·실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핵심자기평가는 고용상태와 상관없이 소명-삶 만족 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Torrey & Duffy 2012). 국내 선행연구들은, 소명이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기여할 수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대학생 집단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소명과 삶 만족 간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으며(신지민, 이은경, 양난미, 2015), 소명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진로적응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윤정, 2013).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사회에서 소명의식의 심리적 유용성은 주로 진로 관련 변인들 사이에서 보다 분명하며, 개인 전반의 긍정적인 자아상보다는 진로에 초점화된 자기효능감과 더욱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일 희망과 일 자유의지를 결과기대 변인으로 설정하고, 두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일 희망은 소명-학업만족 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변인이었으나(Duffy et al., 2011), 소명-삶 만족 간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에서 일 희망의 매개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종속변인으로 진

로와 더 관련이 있는 학업 만족감 대신, 삶 만족감을 지정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희망 수준이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함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은, 성향적 희망(dispositional hope)척도를 사용하였다(Hirschi, 2013; Santilli, Marcionetti, Rochat, Rossier, & Nota, 2016). 따라서, 일 희망의 매개효과가 지지되지 않은 것이 종속변인이 달라짐에 따른 결과인지, 일에 국한된 희망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생긴 결과인지, 아니면 일 자유의지란 결과기대 변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인지,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가 지지된 것은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일 자유의지는 한국 대학생 집단 사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 자유의지는 핵심자기평가와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Duffy et al., 2012; Jadidian & Duffy, 2012), 미국 성인 직장인 집단에서는 미래에 대한 낙관성, 삶 만족도, 직무만족도(Duffy et al., 2013; Duffy, Bott, Torrey, & Webster, 2013; Duffy et al., 2012)와 유의미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높은 수준의 일 자유의지는 서구 문화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진로 및 심리적 안녕감 변인과 긍정적으로 관련됨을 나타낸다.

특히, 소명-삶 만족 간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만 유의미했던 본 연구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이 미래 일에 대한 낙관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삶을 만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말로,

취업 과정에서 현실적 난관과 제약이 있더라도, 원하는 진로를 추구하려는 의지력이 한국 대학생들의 삶 만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한국사회의 상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개입을 돕는 상담 실무자들은 대학생들이 자신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진로 장벽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달성하리라는 의지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소명의식과 삶 만족 간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를 매개변인으로 고려한 첫 번째 시도였다. 따라서 핵심자기평가와 일 희망의 매개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일 자유의지란 새로운 매개변인이 추가됨으로써 나타난 결과일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명의식은 세 개의 매개변인 중 일 자유의지와 그 관계 정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의 소명의식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높은 의지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몇몇 학자들이 소명의식은 특히 역경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집단에서 개인의 성장과 진로발달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고(Dobrow & Tosti-Kharas, 2011; Duffy & Dik, 2013), 위 연구결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결과로,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명연구에서도, 개인이 지각한 진로 관련 학습 환경(career-oriented learning environment)이 취약하다

고 느낄수록, 확고한 소명의식은 개인의 전문적 유능감을 이끄는 촉진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uo et al., 2014). 소명의 기능적 역할과 관련하여, 소명은 개인의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삶과 일의 의미를 확장시킴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요한 결론이었는데(Duffy & Dik, 2013), 위의 연구들은 소명의식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돕는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심리적 안녕감에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소명의식의 예측변인과 결과변인을 추적한 Duffy 연구팀(2014)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소명의식은 3개월 후 참여자들의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과 삶의 의미(life meaning)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선행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는 집단은 위험을 감수하고 보다 도전적인 일을 추구하며,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teger et al., 2010). 이러한 결과는 소명이 구조적·심리적·현실적인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다양한 집단의 진로개입에 특히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장기 취업 준비생 혹은 실직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집단과 같이 지각된 진로장벽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현실적인 진로장벽으로 인해 우울, 불안감, 감소된 자기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위한 진로개입으로써, 본인의 이전 진로와 삶 경험들을 소명의 관점에서 통합해보고, 현재의 노력들을 보다 더 나은 진로를 찾아가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지각하도록 도움으로써 소명이 이들의 진로발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스트레

스와 취업 불안은 일 자유의지와 소명이란 개인 내적 변인으로만 해결 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과도한 취업 경쟁과 일자리 부족이란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회 차원의 해결책이 함께 제시될 때, 각 개인은 보다 자신의 이상에 부합하는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핵심자기평가, 일 희망, 일 자유의지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진로 상담 장면에서 이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아래의 제한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변인 간 관련성을 단 회 측정한 횡단연구라는 점에서, 인과적 관련성을 추론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명의식과 삶 만족 간 인과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 구조적 관계를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종단연구가 후속연구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 대상 및 표집 지역과 관련하여,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라 소명과 연구변인 간 관계가 달라지는지 검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 이외의 다양한 지역을 고려하고, 학년과 전공을 다양하게 고려하거나, 성인 직장인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일 자유의지와 소명의식이 한국 사회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진로개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보다 심도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일 자유의지를 매개변인으로 고려한 최초의 시도이므로, 이 결과를 일

반화함에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의지의 한국인”이란 표현과 같이, 역경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인내하려는 개인의 의지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 자유의지 매개효과가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 상황이 반영된 특수한 결과인지, 소명의식이 범문화적으로 개인의 일 의지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는지 본 연구결과만으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보다 다양한 인종, 문화권을 대상으로 일 의지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들은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을 연구변인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일 자유의지가 취업 관련 변인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취업스트레스, 취업불안, 혹은 취업준비행동 등과 같이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과 일 자유의지간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청년실업 혹은 취업난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사회에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일 자유의지 척도는 본래 성인 직장인의 진로결정 통제감 수준을 측정하고자 고안되었으며(Duffy et al., 2012), 본 연구팀이 이 변인을 고려할 시, 대학생을 위한 일 자유의지 척도(Work Volition-Student Scale; Duffy, Diemer, & Jadidian, 2012)가 개발 중이었다. 성인용 일 자유의지 척도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타당도가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변인들과 일 자유의지 변인 간 상관관계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상관 방향과 일치하는 바, 사

용하기에 무리 없는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김나래와 이기학(2014)에 의해 대학생을 위한 한국판 일 자유의지척도가 변안된 바, 후속 연구들은 이 척도를 연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부족과 고용 불안정으로 스펙이 곧 경쟁력이 되는 오늘날 직업 사회에서, 소명을 추구하는 진로는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메시지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Wrzesniewski 등(1997)의 분류처럼, 어떤 개인은 소명의식보다도 다른 일의 가치를 더 중요히 여겨, 소명의식이 진로선택과정에서 크게 중요치 않을 수도 있다. Duffy와 Dik(2013)은 소명이란 하나의 특정 직업을 발견하는 일회성 사건(one point event)이 아닌, 분명한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평생 구체화되는 진행형 과정(on-going process)으로 보았다. 즉 진로 소명은 개인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소명이 없거나, 소명이 진로선택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의 진로에 소명의 관점을 적용해 봄으로써, 자신의 삶의 궁극적 목적과, 소명 이외 더 중요한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명료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로탐색을 위한 물리적 시간과 다양한 기회가 확보된 대학기간 동안, 본인의 진로를 소명의 관점에서 조명해보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작업은 향후 본인의 진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유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숙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진로소명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래, 이기학 (2014). 대학생의 일 지의의지: Work Volition Scale (WVS)의 타당화 연구. 직업교육연구, 33(2), 41-58.
- 박주현, 유성경 (2012).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 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2), 543-560.
- 신윤정 (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209-226.
- 신지민, 이은경, 양난미 (2015).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4(1), 169-194.
- 심예린, 유성경 (2012). 한국판 소명 척도 (CVQ-K)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847-872.
- 심희준, 이상희 (2016).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VISA)에 따른 진로결정 프로파일 (CDP)과 마음챙김 차이 연구. 인간발달연구, 23(2), 63-83.
- 양난미, 이은경 (2012).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51-68.
- 양동민, 박종민, 김형진, 심덕섭 (2011). 핵심자기평가가 목표달성도에 미치는 영향: 목표 기대감 및 목표 자기일치성의 매개효과 검증. 상업교육연구, 25, 163-186.
- 양필석 (2008). 핵심자기평가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셀프 리더쉽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원 (2014).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구조관계 분석: 진로선택몰입 및 전공만족의 매개효과와 진로관련정서의 조절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진 (2012).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77-896.
- 조혜정 (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1), 157-184.
- 최승혜, 이해영 (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체증상,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2), 808-816.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161-177.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1173-1182.
- Blustein, D. L. (2006). *The psychology of working: A new perspective for career development, counseling, and public polic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hwah, NJ.
- Bunderson, J. S., & Thompson, J. A. (2009). The call of the wild: Zookeepers, callings and the double-edged sword of deeply meaningful work.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4, 32-57.
- Cheung, F., Wu, A. M. S., & Yeung, D. Y. (2016). Factors associated with work volition among aging workers in Hong Ko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3(2), 160-176.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 measure of goa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k, B. J., & Duffy,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2), 424-450.
- Dik, B. J., Eldridge, B. M., Steger, M. F., & Duffy, R. D.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 and Brief Calling Scale(BC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 242-263.
- Dik, B. J., Sargent, A. M., & Steger, M. F. (2008). Career development strivings: Assessing goals and motivation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plann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5, 23-41.
- Dobrow, S. R., & Tosti-Kharas, J. (2011). Calling: The development of a scale measure. *Personnel Psychology*, 64, 1001-1049.
- Duffy, R. D., Allan, B. A., & Bott, E. M. (2012). Calling and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vestigating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y*, 13(2), 469-479.
- Duffy, R. D., Allan, B. A., & Dik, B. J. (2011). The presence of a calling and academic satisfaction: Exploring potential media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 74-80.
- Duffy, R. D., & Autin, K. L. (2013). Disentangling the link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living a cal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 219-227.
- Duffy, R. D., Bott, E. M., Allan, B. A., & Torrey, C. L. (2013). Examining a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unemployed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1), 53-63.
- Duffy, R. D., Bott, E. M., Torrey, C. L., & Webster, G. D. (2013). Work volition as a critical moderator in the prediction of job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 20-31.
- Duffy, R. D., Diemer, M. A., & Jadidian, A. (2012).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Work Volition Scale-Student Ver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0, 291-319.
- Duffy, R. D., Diemer, M. A., Perry, J. C., Laurenzi, C., & Torrey, C. L. (2012). The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work volition sca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400-411.
- Duffy, R. D., & Dik, B. J. (2013). Research on calling: What have we learned and where are we go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

- 428-436.
- Duffy, R. D., Douglass, R. P., Autin, K. L., & Allan, B. A. (2014). Examining predictors and outcomes of a career calling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5*(3), 309-318.
- Duffy, R. D., Foley, P. F., Raque-Bodgan, T. L., Reid-Marks, L., Dik, B. J., Castano, M. C., & Adams, C. M. (2012). Counseling psychologists who view their careers as a calling: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 293-308.
- Duffy, R. D., & Sedlacek, W. E. (2007).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a calling: Connection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 590-601.
- Erez, A., & Judge, T. A. (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s to goal setting, motiva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1270-1279.
- Guo, Y., Guan, Y., Yang, X., Xu, J., Zhou, X., She, Z., . . . Fu, M. (2014). Career adaptability, calling and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f social work students in China: A career construction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5*(3), 394-402.
- Hall, D. T., & Chandler, D. E. (2005). Psychological success: When the career is a call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 155-176.
- Hirschi, A. (2013). Hope as a resource for self-directed career management: Investigating mediating effects on proactive career behaviors and lif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 1495-1512.
- Hirschi, A., & Hermann, A. (2012). Vocational identity achievement as a mediator of presence of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 309-321.
- Jadidian, A., & Duffy, R. D. (2012). Work voli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academic satisfaction: An examination of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 154-165.
- Judge, T. A., Erez, A., Bono, J. E., & Thoresen, C. J. (2002). Are measures of self-esteem, neuroticism, locus of control, and generalized self-efficacy indicators of a common core constru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693-710.
- Judge, T. A., Erez, A., Bono, J. E., & Thoresen, C. J. (2003). The Core Self-Evaluations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Personnel Psychology, 56*, 303-331.
- Judge, T. A., Locke, E. A., Durham, C. C., & Kluger, A. N. (1998). Dispositional effects on job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core evalu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1), 17-34.
- Juntunen, C. L., & Wettersten, K. B. (2006). Work hop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94-106.
- Kirmani, M. N., Sharma, P., Anas, M., & Sanam, R. (2015). Hope, resili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college going adolescent

-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tudies*, 2(1), 262-270.
- Lent, R. W. (2004). Toward a unify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on well-being and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482-509.
- OECD (2015). "Suicide", in *Health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Retrieved May 5, 2016, from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5-11-en
- Russell, D. W., Kahn, J.,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Illustration of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antilli, S., Marcionetti, J., Rochat, S., Rossier, J., & Nota, L. (2016). Career adaptability, hope, optimism, and life satisfaction in Italian and Swiss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Advance online publication. doi: 10.1177/0894845316633793.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T.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Hoboken, NJ: Wiley.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2), 422-445.
- Smedema, S. M., & Tansey, T. N. (2015).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self-evaluations and life satisfaction in individuals with spinal cord injurie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58(4), 217-226.
- Snyder, C. R. (2000).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teger, M. F., & Dik, B. J. (2009). If one is looking for meaning in life, does finding meaning in work help? *Applied Psychology: Health and Well-being*, 1, 303-320.
- Steger, M. F., Pickering, N., Shin, J. Y., & Dik, B. J. (2010). Calling in work: Secular or sacred?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1), 82-96.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Torrey, C. L., & Duffy, R. D. (2012). Calling and well-being among adults: Differential relations by employment statu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 415-425.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Wrzesniewski, A., McCauley, C. R., Rozin, P., & Schwartz, B. (1997). Job, careers, and callings: People's relations to their wor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1), 21-33.

1 차원고접수 : 2016. 07. 09.
수정원고접수 : 2016. 08. 15.
최종게재결정 : 2016. 09. 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re Self-Evaluation, Work Volition, and Work Hope

Ahn, Jina

Dept. of Psychology,
Colorado State University

Lee, Jeeyeon

Dept. of Crea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was aimed to understand how a sense of calling relates to life satisfaction. The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s of core self-evaluation, work volition, and work hope on the calling-life satisfaction link.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10 South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115 females, 95 mal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tested by hypothesizing that core self-evaluation, work volition, and work hope would mediate the calling-life satisfaction link. Results suggested that perceiving a call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re self-evaluation, work volition, and work hope. Additionally, only work volition significantly mediated the link of a sense of calling to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having a calling indirectly relates to greater life satisfaction through increased levels of work volition among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The strength and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were supported by bootstrapping technique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are discussed.

Keywords: perceiving a calling, core self-evaluation, work volition, work hope, life satisfaction